

현대전에는 전후방 구분이 없다

제13주년 예비군의 날 치사

1981년 4월 4일

친애하는 향토예비군장병 여러분!

국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굳건한 안보태세의 확립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시점에서 향토예비군 창설 제13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본인은 이 뜻깊은 날을 맞이하여 향토방위의 막중한 사명을 훌륭하게 수행해 온 예비군장병 여러분과 그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하에서 예비군의 육성발전을 위해 진력해 온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를 깊이 치하하는 바입니다.

특히 지난 13년 동안 울진·삼척사태, 1·21사태를 위시하여 북한공산집단에 의한 무장계렬라 침투사건이 일어났을 때 예비군장병 여러분이 불타는 애국심과 투철한 사명감을 발휘하여 소임을 훌륭하게 완수한 사실에 대하여 온 국민과 더불어 다시 한번 뜨거운 치하를 보내고자 합니다.

향토예비군은 무장계렬라 침투 등 북한 공산집단의 도발이 격렬하였던 60년대 후반기에 후방방위의 절실한 필요에 따라 창설되어 그 동안 일취월장 발전을 거듭한 결과 이제 국가보위에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는 막강한 제2의 국군으로서 믿음직한 면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비군을 주축으로 군·관·민이 유기적으로 결속하여 이룩한 안보체제는 우리의 국가방위태세를 더욱 튼튼하게 다져 놓았습니다.

이처럼 다져진 확고한 안보태세를 바탕으로 우리는 비약적인 국력신장과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민족의 웅비를 기약하는 80년대의 부강한 조국건설을 향한 굳건한 토대와 역량을 마련하였습니다.

예비군장병 여러분!

우리의 이와 같은 헌신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는 만만치 않은 도전과 어려움이 가로놓여 있습니다.

오늘날 국제정세는 전반적으로 매우 유동적이고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사태, 「이란」 - 「이라크」 전쟁을 비롯하여 세계도처에서 분쟁과 무력충돌이 끊임없이 일어나 각국은 자국의 안전보장과 국가이익만을 냉혹하게 추구하는 경향이 점차 농후해져 가고 있습니다.

한반도정세를 보더라도 우리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비타협적이고 호전적이며 폐쇄적인 북한공산집단과 대치하고 있어 한시도 방심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장공비의 계속적인 남파 등 무력적화통일 전략을 조금도 바꾸지 않고 도발적 자세를 견지하고 있으며, 국제사회 속에서 우리 한국을 중상모략하기 위해 온갖 책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민족적 신뢰를 회복하고 동족간의 전쟁을 방지하며 중단된 남북대화를 무조건 재개하기 위한 역사적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남북한의 최고책임자가 번갈아 상호방문할 것을 제의한 바 있지만 그들은 우리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제의에 대하여 아직도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국민의 대화합과 안보최우선의 태세를 더욱 공고히 하여 조국의 번영과 발전을 이룩해야 할 중차대한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향토예비군 장병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욱 굳게 단결하여 당면한 내외의 시련을 극복하고 조국의 평화통일과 자주민족국가 건설이라는 원대한 국가목표를 향해 줄기차게 전진해야 하겠습니다.

예비군 여러분은 우리의 이같은 시대적 사명을 깊이 인식하여 맡은 바 소임을 완수하기 위해 결의를 더욱 새로이 해야 하겠습니다.

현대전에는 전후방 구분이 없으며, 내 고장 내 직장이 바로 전선이요 결전장인 것입니다.

허점이 있는 곳은 언제나 적의 공격목표가 된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여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장구한 역사를 통하여 수많은 외침을 받으면서도 불굴의 용기와 강인한 호국정신으로 그때마다 침략자를 물리치고, 민족사의 정통성을 면면히 이어왔습니다.

우리 민족은 아무리 어려운 역경과 위기 속에서도 능히 이를 극복하고 찬연한 민족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왔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온 국민이 화합단결하여 이러한 겨레의 얼과 슬기가 담긴 훌륭한 전통을 계승하여 민족의 저력과 자신감을 보여줄 때라고 본인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예비군장병 여러분은 우리가 처한 어려운 상황과 여러분에게 부과된 역사적 사명을 냉철히 인식하여 정신무장을 가일층 강화하고 동원 및 교육훈련에 적극 참여하여 전술전기를 연마함으로써 유사시에 최대의 전투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전의 태세를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적의 여하한 기습작전에도 즉각 대처할 수 있는 군·관·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 발전시키는 한편으로 예비군 운영에 있어서도 미흡하고 불합리한 점을 부단히 점검, 개선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철통같은 국가보위의 기틀 위에 국력신장을 가속화함으로써 더욱 부강하고 안정된 나라를 건설할 것을 우리 다 함께 굳게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예비군장병 여러분은 향토방위의 주축이며 국가발전의 초석이라는 긍지와 사명감을 깊이 명심하여 소임 완수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하고자 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훈련참여와 전술전기 연마가 바로 애국의 실천이요, 새 역사창조의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우리 예비군의 무궁한 발전과 장병 여러분의 건투를 기원하는 바입니다.